



불교의 본질을 담아내는 사진여행을 하고있는 미국의 보도사진작가 데이비드 뷰토우 작품. 주제는 엄밀히는 스님과 빛.

美 작가 '붓다를 보다' 부탄 등 사진여행

미국의 보도사진작가 데이비드 뷰토우(David Butow)는 작년부터 부탄, 티베트 등을 여행하며 '붓다를 보다: 사진여행(Seeing Buddha: A Photographic Journey)'이라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붉은 가사, 제례 의식 등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불교가 아닌,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 측면에 집중해 불교의 본질을 담아내려고 했다.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대상의 관찰, 상대에 대한 공감, 순간에 충실하기, 인간적 측면의 공유, 인

내심 등이 사진과 닮았다고 했다. 위 사진을 찍기 위해 그는 세 시간간 남도록 찬팅을 하는 스님들 곁에 있었다. 찬명을 통해 들어온 빛이 스님을 밝게 비추는 순간 그는 셔터를 눌렀다. 뷰토우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얘기한다. 그 순간 스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진 속에는 스님과 사진작가 그리고 이를 응시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 중첩되어 있다. **배현진 기자**



호주 솔즈베리 크메르불교협회 오안 안(Oan Ahn·48) 대표. 그 뒤로 22미터 불교 사원이 들어설 부지가 보인다. 현재 이곳에서는 크메르불교협회가 들어서 있다.

호주 솔즈베리, 22미터 사원 '발원'

솔즈베리 위원회 계획안 심의 중... 지역 주민 관심 집중

호주에서 가장 높은 불교사원 건설을 위한 계획안이 솔즈베리 위원회(Salisbury Council)에 상정됐다. 뉴스(NEWS.news.com.au) 지는 최근 "솔즈베리 크메르불교협회(Khmer Buddhist Association)가 솔즈베리 고속도로 인근 파라필드 가든(Parafield Garden)에 있는 협회 부지에 22미터 높이의 고층 사원을 계획하고, 이를 솔즈베리 위원회에 타진했다"고 전했다.

또한 뉴스 지는 "크메르불교협회는 이미 퀸즈랜드에서 17미터 불교사원을 건축하고,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바 있어, 위원회의 결정에 솔즈베리 지역 주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솔즈베리 크메르불교협회의 불교사원은 15미터 높이의 일주문과 그 주변에 불교 성물을 조형한 조경과 주차장을 마련하는 한편 1,000여 명이 법회를 봉행하고 명상을 실수할 수 있는 22미터 높이의 대법당을 신축한다.

크메르불교협회 오안 안(Oan Ahn·48) 대표는 "새로 들어설 사원은 호주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불교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솔즈베리 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크메르불교협회의 계획을 심의하고 있으며, 결정 시점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11년 10미터 규모의 불상을 세우려는 크메르불교협회의 계획안을 거부한 바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서구 움직이는 여성 린포체, 제춘 칸드로

〈워싱턴포스트〉, "워싱턴 디씨 법회 성료...서구인 신심 다잡다" 리타 그로스 박사, "민첩하고 파워풀한 여성 불교지도자"

중년의 여성 린포체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지는 지난 22일 제춘 칸드로 린포체(Jetsun Khandro Rinpoche·48·사진)를 조명하며 "미국 워싱턴 디씨 버라이즌 센터에서 175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차크라 법회를 봉행한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서구인의 신심을 다잡으며, '지역·문화·인종을 뛰어넘는 활동을 전개하며 주목받고 있는 여성 불교지도자'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지에 따르면, 이번 법회에서 "불자라면 그가 누구든, 돕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가르치셨다"며 "깨달

음은 지혜, 중생구제는 자비를 뜻하는 것으로, 자비가 없는 지혜는 자기밖에 없는 소위 나쁜인 사람 즉 나쁜 사람에 지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비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키니(Dakini)로도 널리 알려진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티베트불교의 계규파와 닝마파를 아우르는 영어, 티베트어, 힌디어 등을 능숙하게 구사하며 미주·유럽은 물론 특히 인도에서 불교 포교와 여성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키니'란 산스크리트어로 '여성의 지혜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뜻이다.

이에 앞서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인도 북부 지역에 교육의 기능을 강화한 여성 사원, 삼텐 체사원(Samtan Tse Retreat Center)를 설립

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 사원에서는 불교는 물론 '경영관리', '스포츠 과학' 등과 같은 교과목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이곳에서 교육 받은 여성 불자들은 불교 안팎을 모두 아우르며 자신감이 넘치는 유능한 여성 불자가 될 것"이라며 "이게 바로 교육 중심의 여성 사원을 건립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 지는 "티베트에는 깨달음에 이르는 여성 수행자들이 많으나, 여전히 그들은 사원과 권력 등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티베트 여성의 극소수만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으며, 그들 중에는 제춘 칸드로 린포체와 같이 티베트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젠더와 종교를 주제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펴고 있는 리타 그로스(Rita M. Gross) 박사는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작지만 민첩하고 파워풀한 소형차와 같은 여성 불교지도

자"라며 "그의 언행이 지역·문화·인종의 벽을 넘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써의 '여성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풀이했다.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계규파와 닝마파의 전통을 이어받고 티베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예세 초갈의 화신이자, 칸드로 위르겐 쪼모(Khandro Urgyen Tsomo)의 환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6세 소녀의 나이로 당시 중병을 앓던 티베트불교 4대 종파 가운데 하나인 계규파의 제15대 칼마파를 '도르제 남다' 청정의를 거행해서 9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티베트불교계의 이목을 잡았던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칼마파 입적 이후 주루부의 수련원에 주석하면서 많은 수행자를 지도해 '주루부의 위대한 칸드로'라고 불렸다.

현재 Samten Tse Retreat Center



제춘 칸드로 린포체

(인도), Lotus Garden Retreat Center(미국·영국) 등을 개원·운영하며,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민드로링 사원(Mindroling Monastery(인도)의 운영을 돕는 한편 '종교를 초월 엘리아 연구소(Elijah Interfaith Institute)'의 '세계종교분과'의 좌장을 맡아, 종교간 대화에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우주의 신비를 벗겨드립니다

별자리 보며 불교 공부하는 日 소간지사

과학관에 가야 볼 수 있는, 둥근 모양의 천정에서 별자리가 움직이는 플라네타륨(planetarium)을 사찰에서 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도쿄에 위치한 400년 된 절 소간지사(鸞願寺)에는 한 달에 두 번, 플라네타륨을 활용한 '우주쇼'가 열린다. 외벽에 우주선이 붙어있는 사찰 옆 건물에서다. 사람들은 가족의 자에 편히 누워 빈이 만들어내는 소우주의 화려함을 만끽한다. 별자리

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으며 스님의 친절한 천문학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불교와 우주. 이 멋진 앙상블을 기획한 건 료 카스가(Ryo Kasuga) 스님이다. 5살 때 지구에 가깝게 접근한 화성의 붉은 신비로움에 매료된 후로 줄곧 눈에 망원경을 떼지 않은 스님은 한때 천문학자를 꿈꾸어 왔던 정도로 관련지식이 해박하다. 만담가 뻗치는 유머감각까지 겸비한 덕에 소간지사의 '우주강의'가 사

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건 당연지사. 참가예약은 필수다.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능하면 흥미진진한 방법으로 불교를 소개하려 했다. '사찰 천문관'은 우주의 신비와 불교의 교리가 상통하는 점점,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불교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휴식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살아있는 존재를 위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여태까지 스님들이 종교적 의례나 형식에 얽매어 부처의 진심



일본 플라네타륨 협회에 등록된 정식 천문관인 소간지사에서는 불교를 우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 역도 가능하다. 소간지사의 플라네타륨. 의자에 앉아 천정을 보면 별들이 쏟아진다.

을 되새겨보려고 하지 않았다 생각 없이 사찰을 찾은 사람들에게 불교와 우주를 동시에 선물해준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캘리포니아에 나뉜 부처님 진신사리

14대 달라이 라마 기증 진신사리 등 200여 점 선보여

부처님과 근·현대 고승의 사리를 친견하는 전시회가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Riverside)에서 마련됐다.

〈Press Enterprise〉 지에 따르면, '오렌지 테라스 커뮤니티 센터(Orange Terrace Community Center)'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14대 달라이 라마가 지난해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8점과 44명의 근·현대 고승의 사리 200여 점 등이 전시되어, 백안의 불자들의 신심을 다잡았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의 전체 진행을 맡은 마이클 포츠(Michael Fouts) 법사는 "지난해 14대 달라이 라마의 방문으로 지역 불교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번 전시회는 리버사이드 불교계의 '성장'을 보여주



미국의 한 어린이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보고있다.

는 첫 전시회로, 대 사회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오렌지 테라스 공원에서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사리친견법회로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8월 첫 주까지 계속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गर(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롬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गर(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위암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위암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गर(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가리야(시가리야성체) - 풀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 부대인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 ①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 ②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 ③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및 포함
 - ④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 ⑤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 ⑥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 ⑦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 ⑧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 ⑨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 ⑩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8대 佛敎聖地 지역 안내 ▶

- ① 보드가야(Bodhgaya):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② 사르나트(Sarnath):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 ③ 스라바스티(Sravasti):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④ 라즈기르(Rajgir):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 ⑤ 바이살리(Vaishali):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猿王奉養)정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⑥ 쿠시나गर(Kushnagar):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⑦ 룸비니(Lumbini):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 ⑧ 상카시아(Sankasya): 부처님이 도라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김영권 | 사업자등록번호: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maru@maruts.co.kr